

“동부지역본부 조직개편, 도민·도의회와 소통”

김 지사 “부서이전 등 납득해야” 광주 군공항 특별법 시행령에 이전지역 지원 구체화 등 강조 고흥 우주테마파크 조성 독려

김영록 전남지사는 30일 동부지역본부 조직개편과 관련 “본부장 2급 직제 승인과 일자리와 역사문화 등 중요 부서 이전에 대해 도민들이 납득하도록 소통하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를 통해 “동부지역본부에 어떤 업무가 가야 하나에 대해선 관점에 따라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 “도민, 도의회의 뜻

을 잘 모아 7월 정기인사가 잘 이뤄지도록 노력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2급 본부장은 명실공히 총괄조정 역할을 하는 기관장으로서 성격을 갖게 된 것으로, 그 기능을 잘 하도록 예산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동부본부에 배치되는 직원들도 인사가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당초 광양항·여수항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서 이관이 언급됐지만 기존 환경·산림부서와 함께 기술파트 위주로 구성되면 일반 도민과 거리가 멀어진다는 의견이 있었고, 관광부서 역시 관광객 1억명 시대 실현과 남해안 관광벨트 육성 등을 위해 본청 차원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일자리와 투자유치, 산단 조성 등 업무를 할 일자리투자유치국은 가장 중요한 부서이고, 문화융성국은 영상미디어콘텐츠, 애니메

이션클러스터 등 문화산업을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선 이전지역 지원 규정 구체화를 거듭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전 대상지역 지원이 중요한데, 특별법 자체가 종전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전지역 지원, 이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이전 후보지 선정 시 기초단체장뿐 아니라 광역단체장 의견 명시, 종전부지에서 과도한 이익금을 못 내게 한 조항 개선을 통한 이전지역 지원 확대 등을 관철하도록 국방부와 적극 협의하라”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또 “민간·군공항 이전도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해 지역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최근 전남사회단체연합회의 광주 군공항 이전 바로알기 도민강연회가 반응이 좋았

다. 이처럼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어떤 점이 있고, 어떻게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설명해 도민이 이를 근거로 판단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누리호 3차 발사 성공과 관련해선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우주발사체 제조시설 투자도 앞당겨지도록 광주·고흥 고속도로 등 교통과 정주여건 개선에 지속해서 노력하자”며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늘어난 만큼 우주항공 체험과 교육, 관광 활성화를 위한 우주테마파크 조성도 서둘러야 한다”고 독려했다.

김 지사는 이밖에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산사태 등 각종 재해 위험지역 점검 및 피해 예방대책,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타 시도와의 공조 등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정근산 기자

광주예술의전당장에 운영문씨



광주시는 30일 “초대 광주예술의전당장(개방형 4호 지방서기관)에 운영문(사한국음악협회 광주시지회장(사진)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전당장은 예술의전당 업무 종합 기획과 시립예술단 운영 및 공연 관리 등 예술의전당 운영을 총괄하며, 임기는 2년이다.

문 신임 전당장은 목포대학교 음악과를 졸업하고 조선대학교 음악학 석사, 광주대학교 연주학(합창지휘)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또 (사)한국합창총연합회 부이사장, 광주합창연합회 고문, 광주문화예술회관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장과 지휘자, 광주문화방송(광주MBC)어린이합창단 지휘자, 광주 동산중·고등학교 음악교사 등 30년 동안 지역 문화예술 활동에 전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개관 32주년을 맞는 예술의전당은 최근 리모델링을 마치고 6월 새롭게 문을 연다”며 “문 신임 전당장은 시민과 소통하는 수준 높은 공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립예술단 운영과 문화·공연예술 활성화에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발산마을, ‘건강 마을’로 조성 시, 행안부 로컬브랜딩 선정

광주시는 30일 “행정안전부의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서 ‘마을이 체육관, 피지컬 발산’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피지컬 발산은 서구 발산마을 골목길과 언덕을 활용해 운동과 건강을 테마로 로컬브랜딩을 육성하는 것으로, 올해 국비 3억원, 시비 3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인근 주민이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건강 관련 창업을 활성화하고 관광객이 찾아와 활력을 불어넣는 명소를 만들 계획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발산마을을 과거를 품은 도시 도시재생 사업 거점이자 전 국가대표 체조선수 양학선이 태어난 장소성이 더해진 곳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용현 기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하세요” 전남도, 보험료 90% 지원

전남도가 지역 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가 부담 경감을 통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지난해부터 보험료 지원 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했다. 농가는 보험료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분증, 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경작확인서 등 가입 자격 및 농지의 지번과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지역 농축협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 품목은 올해 새롭게 추가된 귀리 등을 포함해 모두 70개 품목에 달한다. 주요 품목별 가입 시한은 옥수수·고구마 6월 9일, 대파 6월 16일, 일반 벼 6월 23일, 가루 쌀 7월 7일, 시설원에 작물은 12월 1일이다.

지난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10만 6,000곳의 농가가 납입한 총보험료는 1,650억원이며 이중 자부담액은 165억원이다.

태풍, 호우 등 피해로 받은 보험금은 총 992억원으로 경영안정에 많은 보탬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면적 15만 8,000ha, 가입률 70%를 목표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한 농업인에게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적극 홍보하고 있다.

도는 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도비 199억원 등 1,66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기상재해는 예측하기 어렵고 광범위하게 발생, 피해 규모가 크고 예방에도 한계가 있다”며 “농가에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꼭 가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근산 기자



부모님과 함께 영화관람
광주시 서구는 30일 메가박스 광주 상무점에서 경중 치매환자 및 가족, 지역주민 30여명을 대상으로 ‘부모님과 함께하는 귀한 영화관람(부귀영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서구 제공

내일 나주서 전남 농수산물식품 수출상담회

식품 유관기관·기업 등 참여 남도음식 세계화·시장 개척

전남도는 30일 “남도음식 세계화를 통한 농수산물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오는 6월 1일 나주 다목적체육관에서 ‘2023년 상반기 우수상품 품평·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광주전남지원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수출 유관기관이 공동 주관한다.

전남 식품 수출기업 지원사업의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향후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해외 구매자 초청을 통한 수출상담회와 해외 구매자의 한국지사 관계자, 국내 대형 유통기업 엔디(MD)를 초청한 제품 품평회를 비롯해 해외 식품시장 맞춤형 제품 개발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상담회에 앞서 미국 뉴욕 주류시장(Main Stream)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쇼룸을 운영하는 구매자를 초청해 ‘해외 주류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전략’을 주제로 주류시장 진출 성공 사례를 듣는 강연도 개최한다.

상담회 참가 기업에는 국내외 유통채널 관계

자와 입점 상담, 포장재·디자인 컨설팅, 현지 시장에서 상품 가치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24년 농수산물 제품 개선·고도화 사업’ 지원 자격을 부여한다.

신원근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에 앞서 자사 제품의 수출 목표 국가를 확실히 하고 현지 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시장 진출을 추진해야 한다”며 “해외 식품시장 전문가를 다수 초청한 이번 행사가 전남지역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내년 총선 ‘선거제 개편’ 협상결렬
▶1면에서 계속

정계특위에서 활동중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다른 정쟁 법안이 많아 단 일안이 빠르게 도출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22대 총선의 선거구 확정 법정 시한은 지난 4월 10일로, 이미 법정 시한을 한 달 이상 넘겼다.

선거구 획정을 위해선 선거제를 확정해야 하는데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정계특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어 선거구 확정도 요원한 상황이다.

전매 광고 안내

전남매일 광고는 전화 및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모집·매매·부동산·공고·영업·분양·모임

· 광고료 062) 720-1016, 1017
· 팩 스 062) 720-1020
· 이메일 jnmi1000@hanmail.net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공시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고정109 업무방해 피고인 박용환

위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 되었음을 공시함

2023. 5. 17
판사 김연주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드림꽃도매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축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정품 화환 75,000원 재사용 화환 50,000원

Tel, 062) 233-9961 Fax, 672-996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여러분의 취업성공, 활기찬 경제도시 남구가 함께합니다

남구 일자리박람회 607-2672
취업상담 및 알선 607-2675
남구 공공일자리 607-2673

남구 취업지원센터